

빅3 허윤경·이정민·전인지 “KLPGA 개막전 양보없다”

롯데마트 여자오픈 내일 티샷…김효주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개월 동안의 겨울잠을 깨내고 마침내 개막한다. KLPGA 투어는 9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제8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을 시작으로 2015시즌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는 총 29개 대회에 총상금 184억원이 걸려 있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새 골프여왕은 누구?

올해는 KLPGA 투어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금왕과 다승, 최저타수, 대상(MVP)을 모두 휩쓴 김효주(20·롯데)를 비롯해 백규정(상금랭킹 5위), 장하나(상금랭킹 6위), 김하늘(상금랭킹 9위), 김세영(상금랭킹 10위) 등 2014년 KLPGA 투어를 이끌었던 주인공들이 모두 해외로 떠났다. 이로 인해 KLPGA 투어는 새로운 골프여왕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개막전부터 치열한 우승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015년 ‘빅3’로 평가받는 허윤경(25·SB)과 이정민(23·비씨카드), 전인지(21·하이트진로)는 개막전 우승으로 기선제압을 준비하고 있다.

허윤경은 “전지훈련 동안 체력을 많이 강화했다. 올해는 대회가 많아져 체력관리를 잘 해야할 것 같다. 조금하게 경기하지 않고 매주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개막전 출전을 위해 미국에서 날아왔다. 김효주의 출전으로 KLPGA 투어는 개막전부터 더 화끈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7일 귀국한 김효주는 곧바로 제주도로 이동해 대회 준비를 시작했다. 김효주는 “최근 몇 경기 동안 분위기가 좋았다. 무리하지는 않겠지만 (우승의)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않겠다”라며 우승을 정조준했다.

●제2의 김효주, 백규정은?

2013년 김효주, 2014년 백규정. 걸출한 신예들의 등장으로 KLPGA투어는 더욱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올해도 주목받는 신예들이 등장했다. 김효주와 백규정의 뒤를 이을 신인왕 후보는 2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2014인천아시아게임에서 여자골프 개인과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박결(19·NH투자증권)과 지한솔(19·호반건설)이다. 둘은 개막 전부터 신인왕에 욕심을 내고 있다. 지한솔은 1일 열린 KLPGA투어 미디어데이에서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왕을 꼭 차지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결 역시 “신인왕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보 없는 전쟁을 예고했다. **주영로 기자**

평창마운틴클러스터·강릉코스탈클러스터 평창올림픽 시설 네이밍 확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및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 중 사용될 주요 시설에 대한 네이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설상경기장이 모여 있는 평창 일대를 ‘평창마운틴클러스터’,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일대를 ‘강릉코스탈클러스터’로 부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클러스터 내 지구 명칭도 정해졌다. 평창마운틴클러스터는 세부적으로 평창올림픽플라자, 알펜시아스포츠파크, 보광스노경기장의 3개 지구로 구성되고, 강릉코스탈클러스터 내 강릉하키센터·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강릉아이스아레나·강릉컬링센터를 묶어 강릉올림픽파크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에 이름이 확정된 시설은 2개 클러스터, 4개 지구, 14개 경기장 등 총 20개다.

조직위는 “대회시설 네이밍을 선정하면서 강원도 및 개척도시 등의 지역 의견은 물론 경기단체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확정한 명칭은 대회기간 중 사용될 것이지만, 네이밍 또한 대회 유산이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LIG손해보험 강성형 감독 정식선임

남자프로배구 LIG손해보험이 7일 강성형(45) 감독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수석코치로 LIG와 인연을 맺은 강 신임 감독은 올 2월 4일 문용관 전 감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사퇴하자 감독대행을 맡아 2014~2015시즌을 마무리했다. 9경기를 지휘해 5승4패를 기록했다. 강 신임 감독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팀원 모두가 하나가 돼 새로운 팀으로 변모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쇼트트랙국가대표 선발전

2015~2016시즌 쇼트트랙국가대표 선발 1·2차전이 목동아이스링크에서 8~9일과 11~12일 열린다. 지난해 4월 대표선발전 방식이 변경되면서 2015~2016시즌 선발전은 3차전까지 진행된다.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규정에 따라 3월 세계선수권 여자부 종합우승자 최민정(17·서현고)은 우선 선발됐다.

트리고골프와 함께하는 이보미의 힐링골프

9 팔로만 스윙하지 말고 몸을 회전하라

장타 비결은 ‘체중 이동·상체 회전·정타’



1, 2 백로고 강한 스윙에서도 비거리가 짧은 이유는 하체와 상체의 움직임 없이 팔로만 스윙하기 때문이다. 백스윙과 다운스윙에서 체중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4 정확성을 높이고 더 큰 비거리를 내기 위해선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하체의 체중 이동과 상체의 회전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체중이동과 상체 회전은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비결이다.

상체 회전 없이 팔만 들어올린 백스윙 잘못 클럽 헤드 열려 슬라이스 같은 미스샷 발생 오른쪽발로 체중 이동하고 상체 충분히 회전

드라이브 샷의 거리가 짧은 골퍼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상체의 회전이 부족한 상태에서 팔로만 스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동작에서는 정확한 타격도 힘들고 거리를 더 보내려는 욕심에 강하게 내려치는 무리한 스윙을 하게 돼 슬라이스와 같은 미스샷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두 가지 백스윙의 유형을 살펴보자. <사진 1>만 보면 백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상체의 회전이 거의 없다. 오로지 팔만 들어올린 상태로 백스윙이 진행되고 있어 스윙의 크기도 매우 작다. 손이 어깨 위치에서 멈춰있다. 이런 자세에서 백스윙을 더 크게 하려면 손목을 쓰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나쁜 동작을 하게 된다.

<사진3>를 보면 <사진1>과 크게 달라 보인다. 그러나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해 있고, 상체도 충분히 회전했다. 손의 위치도 얼굴 높이까지 올라와 다운스윙 때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한 파워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백스윙 때 상체가 회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크다. 특히 드라이브 샷에서 상체의 회전 없이 팔로만 클럽을 들어올렸다가 내려치는 스윙은 미스샷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거리 손해다. 다운스윙 때 클럽의 헤드가 가파른 각도로 내려오게 되고 체중 이동이 없는 상태로 팔로만 스윙하기 때문에 백스윙 때 모아 둔 힘을 충분히 발산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런 스윙에서는 클럽의 헤드가 열린 상태로 임팩트되면서 슬라이스 같은 미스샷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 뿐만 아니라 더 세게 치려다 보

면 임팩트가 되기 전 상체가 왼쪽으로 빨리 돌아가면서 토핑(공의 윗부분을 때리는 샷) 같은 미스샷도 자주 발생한다. 드라이브 샷에서 장타는 강한 스윙이 아니라 올바른 체중 이동과 상체의 회전, 그리고 정확한 타격이다. **도움말 | 프로골퍼 이보미**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le coq sportif
GOLF COLLECTION

외국인선수 의존 ‘몰빵 배구’·여자부 트라이아웃…‘양날의 검’

‘NH농협 2014~2015 V리그’는 외국인선수 기록에서 기묘비적 수치를 보였다. 남녀 모두 다섯 자릿수 공격점수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이다. 남자는 2013~2014시즌 8739번의 공격에서 2014~2015시즌 2508번이 늘었다. 증가율이 무려 28.69%다. 여자는 지난 시즌 이미 다섯 자릿수 공격점수를 기록했다. 2014~2015시즌에는 또 8.41%가 늘었다. 외국인선수의 공격점수율은 남자 44.05%, 여자 47.48%였다. 외국인선수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2006시즌에는 남자 14.54%, 여자 22.03%였다. 점점 융병에게 물입되는 ‘몰빵 배구’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표 참고).



2013~2014시즌 59.88%라는 역대 V리그 한 시즌 최고 공격점수율을 기록했던 삼성화재 레오(왼쪽)는 2014~2015시즌에도 56.66%의 높은 공격점수율을 타 구단 외국인선수를 압도했다. 레오가 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벌어진 OK저축은행과의 챔피언결정전 3차전 도중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안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시즌	경기	공격시도	성공	성공률(%)	점수율(%)
05~06	74	1557	786	50.48	14.54
06~07	117	4292	2135	49.74	34.55
07~08	93	3287	1696	51.60	22.28
08~09	137	4286	2177	50.79	30.46
09~10	193	5660	2924	51.66	24.87
10~11	151	5135	2619	51.00	29.93
11~12	155	6508	3570	54.86	31.14
12~13	177	6762	3440	50.87	36.68
13~14	194	8739	4638	53.07	41.72
14~15	236	1만1247	5802	51.59	44.05

시즌	경기	공격시도	성공	성공률(%)	점수율(%)
06~07	102	3895	1472	37.79	22.03
07~08	115	3805	1333	35.03	18.83
08~09	134	6460	2910	45.05	32.42
09~10	132	5992	2631	43.91	30.62
10~11	119	4280	1866	43.60	27.15
11~12	168	9001	4044	44.93	39.65
12~13	158	7460	3470	46.51	36.92
13~14	170	1만2533	4429	43.20	45.20
14~15	174	1만1116	4627	41.62	47.48

“용병파워공격 위주…보는 재미 감소” “득점 확률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

트라이아웃은 용병 점유율 감소대책 수준 낮아져 리그 경쟁력 저하 우려도

●팀 성적과 관련 있기도, 없기도 한 몰빵 배구

몰빵 배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일각에선 “한국배구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흉”이라고 혹평한다. 국제대회에서 갑수록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남자배구만 놓고 본다면 맞는 얘기다.

“지나친 몰빵배구에 보는 흥미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큰 키를 이용한 외국인선수의 파워공격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예전 우리 배구가 보여줬던 아기자기한 플레이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세터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이라는 설도 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코트를 사이에 두고 경기하는 배구의 특성상 잘하는 선수에게 공격을 몰아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본다. “외국인선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내선수 누구라도 한다. 몰빵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몰빵도 실력이 기술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팀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몰빵 배구는 팀 성적은 관계가 있기도, 없기도 하다. 2014~2015시즌 남자부 외국인선수의 공격점수율은 삼성화재~대한항공~LIG손해보험~OK저축은행~한국전력~현대캐피탈~우리카드의 순이다. 삼성화재 레오는 56.66%로 다른 팀 용병들보다 10% 이상 앞섰다. 여자부는 KGC인삼공사~현대건설~도로공사~흥국생명~GS칼텍스~IBK기업은행의 순이다. 최하위 IBK의 외국인선수 공격점

수율은 40.19%였는데, 데스니티가 4라운드 에 부상을 당해 3경기를 결장하면서 김희진, 박정아 등 토종선수들의 높은 경쟁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

●40% 이상의 공격을 값싼 외국인선수가 해낼 수 있을까?

다음 시즌 여자부는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을 실시한다. 여기저기 준비 부족이 드러나지만, 일단은 시행해보자고 한다. 트라이아웃 찬성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치솟는 외국인선수의 점유율을 떨어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2014~2015시즌 사상 처음으로 모든 여자팀의 외국인선수 공격점수율이 40%를 넘어섰다. 심각한 수준이다.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세상의 어떤 리그도 인위적으로 리그의 수준을 떨어트리지는 않는다. 트라이아웃은 수준 낮은 외국인선수의 등장으로 리그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KGC인삼공사 조이스는 2시즌 동안 54.46%, 53.56%의 공격점수율을 기록했다. 2013~2014시즌에는 팀을 3위로 이끌었지만, 2014~2015시즌 팀은 최하위로 추락했다. 조이스는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선수였고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연봉도 우리 선수들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려는 트라이아웃은 우리 선수들보다 연봉은 적게 주면서 기존의 외국인선수만큼의 역할을 기대하는 제도다. 게다가 대상자들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어린 선수들이다. 프로무대 경험이 없거나 모자란 이들이 그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